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선교 소식 2024.9.9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올 여름은 매우 분주하게 사역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섬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기도와 선교비 지원과 방문 봉사로 함께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멕시코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노아 선교 센터 사역

목회 훈련 프로그램 지원

이번 달 9 월 2 일 부터 6 일 까지 노아 선교센터에서 멕시코 목회자 훈련이 진행 되었습니다. 디모데 훈련원 (복음주의초교파 목회자 훈련원)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선교센터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회자, 교회 지도자 51 명이 5 개의 도시에서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일년에 4 번 분기별로 계속 될 예정입니다. 선교 센터 완공을 올해 말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 참가인원 50 여명이 4 박 5 일간 숙식하며 진행되는 목회자 훈련이 선교센터에서 진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선교센터가 더욱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실제로 51 개의 침대를 제공할 수 없는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불편한데로 목회 훈련의 임하는 멕시코 목사님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선교센터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2. 여름 사역

올 여름은 6 월말 부터 8 월말 까지 무려 5 개의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여 저희 멕시코 현지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선교지에서 의미있는 사역을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이 지역은 할 일이 참 많은 곳 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역 중인 토요일 어린이 성경클럽 활동 지역 (다섯 마을과 참여한 어린이 숫자: 로스 리오스 55 명, 비스타 몬타냐 90 명, 산타 로사 60 명, 팔로 알토 65 명, 크루시타 90 명)과 뿌에르타 델 씨엘로 교회 (60 명) 현지인 교회 지원 사역까지 총 420 여명의 아이들에게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마다 복음의 씨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어린이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월 22-24 일 (3 일) 어린이 방학성경학교 (장소: 본교회, 170 명 참가)

8 월 8-10 일 (2 박 3 일) 어린이 캠프 (장소: 선교센터 155 명 참가)

그리고 청소년 사역으로는

7 월 18-20 일 (2 박 3 일) 복음주의 교회 연합 중, 고등부 수련회 (장소: 선교센터 110 명 참가)

8 월 1-3 일 (2 박 3 일) 복음주의 교회 연합 청년 수련회 (18 세 이상) (장소: 선교센터 65 명 참가)



3. Árbol Frondoso (울창한나무교회 주일 아침 예배 모습과 노아선교센터 모습)



감사 한 일과 기도 요청

1. 막내 아들 정조셉(22 세)이 소망하던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허락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6 월에 졸업한 큰 아들 갈렙 (24 세) 이가 직장을 얻는 일을 위하여도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선교센터 건축이 미루어져서 올해 말쯤에는 완공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아선교센터가 지역 교회를 돕고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명남 선교사 부친께서 지 난 8 월 21 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위해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정명남, 권정희 선교사는 안식월로 한국에 입국해 11 월초 까지 머물며 약 두 달간 후원교회도 방문하며 건강 검진도 받는 충전에 시간을 갖을 계획입니다.
5. 한국 임시 연락처 010 6696 0234

멕시코 정명남, 권정희 (갈렙, 조셉) 선교사